

[보도자료] 쿠팡, 전국50여 개 캠프, 쿠팡맨 대상 푸드트럭이 간다

2019. 7. 24.



“이번 더위 함께 이겨요” 쿠팡 고명주 인사부문대표(왼쪽 첫번째부터 시계방향), 노사협의회 권용업위원, 서동민위원 등 임직원들이 쿠팡맨들에게 격려의 말과 함께 식사를 건네고 있다.

- 노사위원회 직원 아이디어, 전 직원 한마음으로 응원과 격려
- 임원들 현장 깜짝 방문, 고명주 인사부문대표 “현장 근무자들과 지속 소통하는 자리 마련할 것”

2019.07. 24 –쿠팡은 지난 23일 전국 50여 개 캠프, 쿠팡맨 대상으로 푸드트럭을 준비해 따뜻한 한끼를 제공하는 치얼업데이(Cheer up day)를 진행했다고 24일 밝혔다.

쿠팡은 이번 행사는 노사협의회 직원들의 제안으로 시작되어 어느 행사와 달리 기획, 운영 등 모든 과정이 직원들의 자발적인 아이디어와 참여로 진행되었다고 강조했다.

이날 행사에는 쿠팡 고명주 인사부문 대표, 쿠팡 노사협의회 권용업 위원, 서동민 위원 등 임직원이 대거 참석해 배송을 끝마치고 배송캠프로 복귀하는 쿠팡맨들에게 따뜻한 식사를 전달하고 이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날 행사에 직접 참석하지 못한 비배송직군의 여러 임직원들은 쿠팡맨들을 응원하는 영상편지를 만들어 현장에서 공개해 직원들이 서로 격려하는 분위기를 만들기도 했다.

고명주 쿠팡 인사부문대표는 “무더위 속에서도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묵묵히 자신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 쿠팡맨들을 응원하기 위해 쿠팡의 모든 임직원들이 한마음이 되어 정성스레 행사를 준비했다”며 “고객을 위해 무더운 날씨에도 최선을 다하고 있는 쿠팡맨들의 사기진작에 도움이 되길 바라며, 앞으로도 직원들이 화합하고 소통할 수 있는 자리를 다양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쿠팡은 폭염 속에서도 고객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 노력하는 쿠팡맨들에게 다양한 쿨링용품 ‘아이스 쿨러백’, ‘쿨토시’, ‘쿨스카프’ 등을 매해 제공한다. 쿠팡은 앞으로도 쿠팡맨들이 더욱 배송에 집중할 수 있는 쾌적한 근무환경을 만들기 위해 현장

의 목소리에 귀 기울인다는 방침이다.



쿠팡 고영주 인사부문대표가 쿠팡맨들과 함께 식사하며 답소를 나누고 있다.

취재 문의 media@coupang.com